8월호

양양소식

www.yangyang.go.kr

제232호
2014년

CONTENTS

● 2면 무더위 속 '천사 가위손'의 봉사활동 미담
● 3면 15년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가능성 높아
● 4면 "전통시장 탈바꿈 견인차 역할"
● 5면 양양국제공항 한 해 첫 외국인 탑승객 10만명 돌파
● 6면 기사문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
● 7면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
● 8면 명지리 앵두마을에 대학생들 '북적'
● 9면 양양송이밸리 짚-라인 인기몰이
● 10면 우리군 청소년, 일본문화체험 다녀왔어요!
● 11면 게시판
● 12면 알아두면 좋아요

· 발행일 : 2014. 8. 29(금)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드높은 가을 하늘 문턱 넘어
남대천 따라 송이 향 내려앉다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성큼
곁으로 다가와 앉는다.

이맘때면 천년의 향을 간직한
송이향이 짙게 날리며
조화로운 동행을 시작한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송이조각공원을 한가로이 거닐면
남대천을 따라 송이향이 내려앉는다.

무더위 속 '천사 가위손'의 봉사활동 미담

자원봉사센터 이문형 · 신선숙 · 김선옥 트리오 구슬땀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인들을 위해 무료 이 · 미용 봉사에 나서는 '천사 가위손'이 고마움을 사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들은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이 · 미용봉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문형(51)·신선숙(48)·김선옥(35) 트리오 가위손이다. 이들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양양군문화복지회관 1층에 마련된 간이 이 · 미용실에서 이곳을 찾는 노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벗도 돼주며 머리까지 세련되고 멋지게 해줘 자식보다 더 친근감이 든다고 노인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트리오 가위손의 이문형 씨는 남문리에서 이재형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숙 씨는 주부로, 김선옥 씨는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배웠던 이 · 미용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이문형

신선숙

김선옥

"세련된 서비스에 말벗도 덤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서로 안부도 묻는 말벗도 돼주고 있어 이날만큼은 명절 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로 정겨움이 배가 된다.

트리오 가위손들은 "내 부모님의 머리를 만져준다는 정성으로 봉사에 나서다보니 노인들께서 즐거워하고 만족도도 높다"며 "이제는 스타일에 맞춰 젊게 보이시려고 맞춤형 주문도 많이 해 봉사하는 재미가 나고 보람도 크다"고 즐거워했다.

이 · 미용봉사는 양양군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 · 미용 봉사활동이 문화복지회관 1층 비좁은 장소에서 진행돼 다소 불편했지만 문종태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배려로 최근 좀 더 넓은 장소로 옮긴데다, 의자와 거울 등 편의시설도 보충돼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지닌 작은 재능을 발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상의 희망을 주고 있는 트리오 가위손들은 다가오는 봉사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보다 세련된 스타일로 머리를 만져주기 위해 헤어공부에 여념이 없다.

"중국어로 양양 알리기 구슬땀"

중국어 전문통역원 이옥란 씨

20년째 우리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옥란(57, 사진) 씨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국어 통역과 교육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95년 고향인 중국 길림시에서 양양으로 시집온 그는 이듬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전업 주부로 지내다, 지난 2000년부터 출중한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어 동아리 강사를 비롯해 송이축제 동시통역원 등을 맡아 송이의 고장인 양양군을 중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교류에 나서고 있는 군청 공무원들과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의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날이면 양양시장에 나가 통역과 가이드를 하며 되도록 많은 관광객이 양양특산물을 선물로 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지역발전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우리군 규제개혁업무추진 본격 가동

홈피에 신문고도 설치…발굴 등록규제 258건

우리군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부군수 직속 전담조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양양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양양군 규제개혁추진단은 국가경쟁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혁과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불합리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1회 관내 제조업 공장, 농어업 관련기업,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국정목표 추진분야와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등록규제 일괄정비,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허가지연 사례,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숙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군민들의 주거, 교육, 일자리 관련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현재 우리군에서 발굴해 등록한 자치법규상의 규제는 258건으로 전국대비 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규제 감축대상 전수조사를 거쳐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 징수조례 등 등록규제를 10월말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033-670-2951)과 군청 홈페이지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 온 · 오프라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신고할 수 있다.

15년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가능성 높아

환경부 "규제완화 정책에 포함해 적극 지원" 공식입장 밝혀
내년 2월경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신청 계획…정치력·공조체제 강화 주효
박근혜 대통령 주재 보고 자리서 사실상 승인

우리군이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와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관광·콘텐츠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포함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환경부가 사실상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며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에 맞춰 친환경적이며 안정한 설계와 공법에 의해 부적합한 사유를 보완할 계획인 만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양양군이 그동안 추진해오다 부결된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부결사유를 보완하고 친환경적 설치를 위한 컨설팅에 나서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최신공법 적용 등 보완사항이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희범 문화부 1차관도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서울 남산의 곤도라형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대안노선이 9월경 확정되면 공원계획 변경 신청에 필요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2월경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군이 지난 15년간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이번에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선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오는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오색삭도추진단 670-2530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열기

우리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원여성대학 양양총동문회(회장 이정순)는 지난 7월23일 우리군을 방문해 김진하 군수에게 50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31일에는 장학재단 상임이사인 양동창 전 문화원장이 100만원을 전달했다.

또 1일에는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노현화 지부장이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무산복지재단이 8일 500만원을, 11일에는 서면이장협의회가 100만원, 20일에는 동부문화재단이 300만원을, 같은 날 베다니식품에서 500만원을 쾌척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선진해변 · 전통시장 벤치마킹…27~29일 국회연수

우리군의회가 개원 후 각종 지역현안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의회는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낙산해변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모범해변을 찾아 벤치마킹하며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이번 선진해변 벤치마킹에는 오한석 의원과 노원현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낙산숙박협회장, 낙산지역 3개 마을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운대, 망상 등 국내 최고 해변으로 꼽히는 곳을 방문해 해변운영체계와 숙박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군의회는 이어 오는 27일~29일까지 이영자 부의장을 단장으로 2014년 지방의회 의원연수 일환으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2박3일간 교육일정으로 짜여 진 이번 의원연수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기법을 비롯해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 각 분야별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나와 심도 있는 특강을 진행한다. 의회는 국회연수가 끝나면 최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라 살아나고 있는 양양전통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선 5일장 등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설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508

“전통시장 탈바꿈 견인차 역할”

박장수 시장번영회장 숨은 열정…난전과 조화로운 테마접목

설악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통의 맥을 유지하고 있는 양양전통시장은 현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11년부터 양양시장번영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박장수(59, 사진) 회장의 숨은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양전통시장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우선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테마 접목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적으로 성공한 전통시장의 모범사례를 찾아 양양시장과 상세하게 비교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설악권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함께 전통문화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양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도 수차례 현장견학을 통해 양양전통시장의 경쟁력 배가 많은 열정을 기울인 결과, 올해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힘입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닌 양양전통시장이 이제는 현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모보다는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테마로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 올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쇼핑거리와 판매거리 조성 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테마사업 적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연계성을 높여야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박 회장은 양양전통시장과 인접한 남대천과 낙산대교 등이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이라는 점에 착안해 앞으로 연어열차 운행 등 다양한 전통시장 체험테마로 양양시장을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양양송천떡’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올 하반기 완료...해외수출 길 모색

우리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양양송천떡’의 브랜드화와 해외수출에 대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

우리군 특산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은 지난 2006년 등록한 양양송이와 양양 설악산 장뇌삼, 양양연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송천민속떡은 순수한 지역산 재료를 고유의 전통떡메 방식으로 빚어낸 전통 떡으로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드높아, 군은 향후 해외수출에 대비,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

송천민속떡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난 6월말 특허청의 2014년도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사업 단체표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특허청 강릉지식재산센터 및 강원도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 7일 양양송천떡의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올해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외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양양송이축제 현장체험 참가자 모집

외국인 송이채취·송이보물찾기·버섯채취

우리군이 오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18회 양양송이축제를 앞두고 9월26일까지 현장체험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양양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양양송이축제의 현장체험은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 송이보물찾기체험, 버섯채취체험 등 다채롭게 펼쳐지며, 양양송이축제 홈페이지(song-i.yangyang.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가장 인기가 높은 송이보물찾기 체험행사는 축제기간 동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시간씩 하루 2차례 운영되며, 현장체험장 소나무 밑에 미리 숨겨둔 황금송이를 보물찾기 하듯이 한 꼭지씩 찾게 된다. 참가비는 1만5,000원.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버섯채취 체험은 표고버섯과 해송이 버섯 등을 직접 채취하는 행사로 참가비는 8,000원이며, 축제기간 동안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각 한 시간씩 하루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체험접수자에 한해 관내 체험마을인 황룡, 금풀애, 해담마을에 숙박을 예약할 경우, 숙박료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담당 670-2723

양양국제공항 한 해 첫 외국인 탑승객 10만명 돌파

올해 총 탑승객 14만6천여명…국제선 14개 노선 최다 운영
단거리 개발·72시간 무비자·홍보마케팅 주효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처음으로 한 해 외국인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하며 관광거점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다.

강원도와 우리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30분 양양국제공항에서 김미영 도 경제부지사와 김학 중국 금학항공 회장, 장석삼 도의원, 김환기 양양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만번째로 입국한 외국인 탑승객의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10만번째 외국인 탑승객으로는 중국 대련 노선을 이용한 씨가 주인공으로 행운을 잡아 국제선 왕복항공권을 선물로 받았다.

도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의 외국인 탑승객 수는 한 해 기준으로 이날 10만392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2년 3만952명, 지난해 5만1,541명에 머물던 것에 비해 배 이상 증강하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또 국내선도 제주·김포노선 3만4천여명, 김해·광주 7천8백여명 등 4만2천여명을 기록하며 소형항공기와 연계운항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되고 있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기준 양양국제공항의 전체 탑승객 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해 14만6천여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13만7천여명으로 93.8%를 차지하고, 내국인 8천8백여명, 러시아인 240명 등의 순이다.

이는 양양국제공항이 개항한 지난 2002년 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외국인 탑승객 11만6,369명의 86.2%를 기록한 것이어서 국제공항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은 단거리 중국노선의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을 비롯해 전세기 12개 노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노선 등 국제선만 1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국내선 3개 노선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까지 35만명 이상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양양국제공항의 탑승객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현재 운항되는 중국 12개 노선을 포함해 국제선 24개 노선과 국내선 4개 노선 등 총 28개 노선이 활발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동북아 허브공항을 기치로 내걸며 저거항공사인 진에어를 유치, 단거리 국제선 개발에 나선 것이 주효했으며, 강원도의 관광자원이 매력을 주면서 72시간 무비자 입국공항 지정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추진해온 강원도 관광의 홍보마케팅도 공항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며 동북아에 강원도와 양양국제공항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교차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항하고 있는 중국 연기노선도 대부분 만석을 기록하며 관광경기 부양에 도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차관광 노선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현재 중국인 관광객에 치우친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양양국제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도시 중 정기노선을 또 유치하고 하반기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노선 개설에 나설 예정이다.

정문헌 국회의원 농촌살리기 법안 대표발의

영농후계자 · 귀농인 과세특례 확대…"농촌지역 경쟁력 강화"

새누리당 정문헌(사진)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살리기를 위한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영농후계자 육성과 귀농귀촌 및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갈수록 고갈되는 영농후계자의 육성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규모를 현행 3헥타에서 5헥타로 확대,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귀농귀촌사업의 안착을 위해 귀농인 등이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면적을 현행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특례기간도 올 연말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공동화가 지속되고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영농후계자와 귀농인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특례가 지속돼야만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농지규모화 정책에 따라 3헥타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는 지난 2000년 8만5,000농가에서 2010년 9만7,000농가, 2012년 9만8,000농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규모를 현행 3헥타에서 5헥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중계석

기사문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

정문헌 국회의원 현남·북 어업인 간담회 마련

조개잡이 금어기간 조정 요청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실과 장석삼 강원도의원이 주관한 양양지역 어업인 간담회가 지난 19일 현북면과 현남면에서 잇따라 열려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어업인 간담회에서 현북지역 어업인들은 기사문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비롯해 현재 설계하고 있는 기사문 방파제 연장과 관련,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방파제 입구를 6~7m 깊이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북과 현남지역에서 매년 피서철이면 열리는 해변축제에 사용하는 조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개잡이 금어기를 7월말 이전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현재 어업인들 편의시설로 조성된 어구 보수.보관 창고가 오래돼 불편이 크다며 창고 이전을 요청했다.

이어 현남지역 어업인들은 3중자망 조업기간을 연중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구항 방파제 연장과 동산항 어구 보수·보관 창고 개선, 일반인들의 어장 출입 제한, 농촌처럼 어촌도 어업용 전기 사용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문헌 의원은 "조개잡이 금어기간 조정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해양수산부와 환동해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지를 조율하고 기사문 방파제 연장공사는 어업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조정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군수는 "어업인들이 직면한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국·도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석삼 도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도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 어업인 여러분들이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도비와 국비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서고속도 동홍천~양양구간 조기 개통 촉구

우리군의회 건의서 채택…"건설사업비 충분히 반영해야"

우리군의회가(의장 최홍규)가 내년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반영액이 부족하다며 조기 준공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동홍천~양양구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비로 1,356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강원도가 요구한 4,000억원의 34%로 명년도 준공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에서 양양까지 동해안을 잇는 최단거리인 동서고속도로가 2004년 8월 착공된 이래 150㎞를 건설하는데 12년이 걸리는 것은 지역 불균형이며 홀대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런데 2017년으로 또 연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류비도 연간 1,785억원이 절감되고 침체된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는 물론, 동해안을 통한 러시아와 북방항로 개발로 총체적으로 2조7천억원의 경제적효과를 가져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의회는 "국가경제와 강원도, 설악권의 물류혁명을 가져올 동홍천~양양구간의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빠른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온 양양군민의 뜻과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호응

보건소, 주 1회 재활치료 실시

우리군이 재가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는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재화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에게 재활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 만성질환 관리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방문간호사 등 필요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대상자의 재활운동을 위해 물리치료사가 주 1회 방문해 재활전문의사의 방문진료 및 상담, 혈압 및 혈당, 욕창관리 등 맞춤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재활치료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뇌병변 및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전담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 및 운동재활, 작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생,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중 장애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문의 건강증진담당 670-2556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

우리군 민선6기 군정구호 확정

우리군은 민선6기 군정구호를 ‘힘찬 도약, 명품도시 양양’으로 정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군정발전을 구현하기로 했다.

군은 민선6기 제30대 김진하 군수의 취임에 따라 양양군정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역동적인 우리군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접목한 군정구호를 확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군정의 5대 방침으로는 ‘공감하는 투명행정’, ‘약동하는 지역경제’, ;‘매력 있는 문화관광’, ‘함께하는 희망복지’, ‘소득배가 농산어촌’으로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민선6기 군정구호와 방침 확정과 관련, 졸속으로 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따라 공모된 다양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새로 선정된 군정구호와 방침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인 가운데 각종 홍보물과 공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군수 공약사항 추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6 어느 아낙네에게

새벽 길삼을
즐기는 년이

죽어서
사발 속옷이
왠, 말이냐.

농경문화권에서의 우리 선조님들 모든 필수품을 가내 작업에서 수요공급 했다 해도 과언 아닐 것입니다. 여기 그 시절 옷감에 얽힌 장면 하나를 소개하면 명주(明紬)를 얻기 위해서는 뽕나무를 심어 그 잎으로 누에고치를, 무명(木綿 목면)을 얻기 위해서는 목화를 재배, 삼베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삼대를 가꿔 그 껍질로 가르고 더 가늘게 잇고 이어서 옷감 재료를 얻었겠습니다. 그야말로 쉴틈없이 천갈래 만갈래 교차하는 연속의 장면 따라 도무지 허리 한번 마음 놓고 펼 수 없었기에 만나면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못 살겠네.”하시던 우리 어머님 즉 아낙네의 그 노역에 저절로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않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편한 마음 한 가슴 수놓아 봅니다.

남대천 은어불법포획 집중 단속

산란기 은어 보호 위해 10월15일까지

우리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두 달간을 은어 불법포획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남대천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불법포획 단속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670-2740

남대천 생태환경파괴 체계적 진단

10월까지 수행기관 선정…근본대책 마련 한목소리

우리군이 생태환경 파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대천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진단에 나선다.

군은 지난 8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진하 군수, 정준화·최금희 남대천 생태환경 파괴 진상규명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대천 생태보전 및 이용관리 간담회를 열고 남대천 수생태변화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연구 용역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대천 전 지류에 대한 오염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용역비를 추가로 세우더라도 근본적인 오염원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편성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대천, 오색천, 후천 등 주요 지류와 함께 양수발전소 하부댐 등을 대상으로 수질을 비롯해 토양, 오염원 등에 대한 화학적 조사는 물론 남대천 수생태계의 현황조사 및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남대천 생태환경파괴 진상규명위원회 등 환경단체와 대학 등으로 구성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10월까지 전문성을 갖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젖줄인 남대천이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 생태환경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번 용역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남대천을 살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남대천 지류에 대한 이번 용역추진은 지난해 관내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된 남대천 생태환경파괴 진상규명위원회의 생태환경파괴 정밀조사 요구를 우리군이 수용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문의 환경 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명지리 앵두마을에 대학생들 '북적'

3박4일간 대학생 문화활동 진행

"시골의 정취와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내년에 꼭 다시 찾을 생각입니다.'

우리군이 지난해에 이어 개최한 대학생 문화활동이 특색 있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현북면 명지리 앵두마을에서 수도권 대학생 37명을 초청해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마을에서 민박을 하며 첫날 트랙터 타기, 한과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12~13일에는 마을탐방과 앵두사진관 운영, 이동 차방, 벽화그리기,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을 벌이고, 14일에는 마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 뒤 주민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문화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독거노인과 대학생 3~5명이 한 팀을 이뤄 손자손녀가 되는 '일가일손(一家一孫)' 캠페인은 독거노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 몸이 불편해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자택에서 연 찾아가는 공연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

양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문화활동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지역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행사의 전 과정을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알리고, 참여 대학생들은 국내 주요행사 및 대학축제 시 사진전 등을 통해 양양군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 담당 670-2101

양양해역에 강도다리 7만7,000마리 방류

수산자원관리공단,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추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강영실)이 동해안의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양양해역 등에 강도다리 치어 20만마리를 방류했다.

동해지사(지사장 이채성)는 지난달 말 6cm 크기의 강도다리 치어를 양양해역에 7만7,000마리를 비롯해 경주해역 7만4,000마리, 울산해역 4만4,000마리 등 모두 7만7,000마를 방류한 가운데 생존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실시된 강도다리 방류사업은 연안해역의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동해지사는 동해안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소득증대와 직결시켜 나가도록 후속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꿈과 희망 주는 일곱색깔무지개"

미협 양양지부, 여섯 번째 지역어린이 대상

미술협회 양양지부(지부장 김영덕)가 올해도 여름방학을 맞아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섯 번째 '일곱색깔무지개' 미술체험교육을 열어 희망을 전했다.

양양지부는 지난달 28일~29일 양양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이달 6~7일 꾸메그린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체험교실을 열고 이들에게 다채로운 미술체험의 시간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오는 13일~14일까지는 그림스타트 강현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미술협회 양양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방학을 맞아 여는 '일곱색깔무지개'는 어려운 환경의 지역 어린이들에게 미술체험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꿈과 희망을 불어넣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특히 미술협회 양양지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미술분야의 체험위주 교육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우수 직원 포상금 어려운 이웃에 베풀어

양양국제공항 관제사 심해용 씨 다문화가정 자녀 도와

양양국제공항에서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심해용(43, 사진) 관제사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심 관제사는 본사가 선정하는 우수사원에 뽑혀 받은 포상금과 자신의 사비를 합쳐 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돕는데 앞장섰다.

그는 회사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 자신도 어릴 적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해 곤경에 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차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소질을 보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 다문화가정을 양양군자원봉사센터로부터 소개받고 지난 1일 이 가정을 찾아 전문미술용품과 침대 및 침구류를 지원했다.

양양송이밸리 짚-라인 인기몰이

7월 한 달만 1,123명 이용…동해바다 조망 장점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짚-라인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체험테마 활성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6월29일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 정식 개장한 짚-라인이 최근 들어 이용객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업체인 (주)짚-라인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이용객수는 지난 5월 시범운영 기간에 227명이 다녀간 후 6월 605명, 7월에는 1,123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체험테마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짚-라인의 인기는 울창한 숲으로 이뤄진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이용자들부터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80m의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면서 멀리 동해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해 짧은 시간동안 숲과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짚-라인이 당초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자, 양양군도 목재문화체험장 등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다양한 체험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대인과 소인 동일하게 2만3,000원이며 할인이용권 소지자에 한해 7~8월 성수기에는 주중 10%, 주말에는 5%의 요금할인을 적용하며 비성수기에는 주중 20%, 주말 10%의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이용자가 많은 성수기에는 사전예약이 필수며 짚-라인을 이용자는 홈페이지(www.ziplineyangyang.c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3-673-8531)로 예약하면 된다.

한가위 명절선물 상품전 참가

우리군·베다니식품, 13~16일까지

우리군은 지난 8월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2회 2014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에 참가해 지역특산물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역업체인 베다니식품을 이번 기획전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절선물 상품전을 위해 2명의 직원을 파견해 해당 제품의 상품홍보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들의 상품포장 선호도 등도 함께 조사해 향후 포장재 개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참가하는 베다니 식품은 양양 서면에 위치한 업체로 산나물류, 약초류, 환제품, 버섯류 등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웰빙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우체국 우편통신 판매, 전국 농협 등 다채널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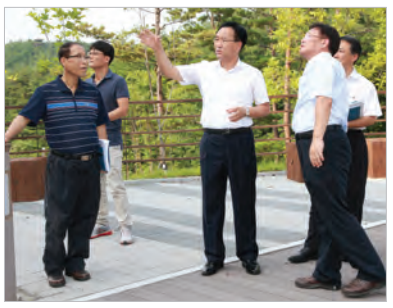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의 홍보활동을 위해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여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로확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하 군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송이밸리 · 종합운동장 등…"후속사업 대응방안 모색"

김진하 군수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찾아 휴양림의 편의시설과 짚-라인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5일에는 양양종합운동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아르바이트 간접경험 유익했어요"

우리군, 대학생들 설문조사 및 현장견학 호응

우리군이 여름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의견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들은 여름해변과 행정업무보조, 아동시설보조, 도시락 배달 등에 투입됐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분야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송이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란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 우리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군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후 홍보전도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하조대, 오산선사유적박물관, 수산 봉수대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견학도 실시했다.

우리군 청소년, 일본문화체험 다녀왔어요!

우리군 남녀중학생 12명은 8월 5일부터 8월 9일동안 '문화탐방교류'를 위하여 다이센정과 교토, 오사카 일정을, 남녀고등학생 12명은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의 고등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8일, 9일 각각 돌아왔다. 양양의 고등학생은 일본의 가정에서 직접 체류하며 일본의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주변의 문화유적지 및 명소인 아사쿠사 관음사, 하코네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양양의 중학생들은 일본 다이센정 청사 및 의회 방문과 '나와(名和)중학교' 등을 방문하여 서로의 소감과 담소를 나눴으며 또한 다이센 지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등 일본의 문화를 피부로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번 교류기간 동안 양국의 청소년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도시의 친목도모 뿐만아니라 청소년이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큰 포부를 가지게 되기를 서로 기원했다.

국유임산물 잣종실 10월까지 주민들에 양여

동부지방산림청, 주민소득 창출 기여…위법행위 특별단속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이 산림행정 3.0실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임산물인 '잣종실'을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영여한다고 밝혔다. 잣종실을 양여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해당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장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해 산림보호활동을 실행한 뒤 국유임산물 양여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주민과 산림조합, 학교 및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잣종실 양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955만㎡에 달하는 국유림에 대해 잣의 결실상태를 확인한 가운데 조사결과 4만여kg의 잣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돼 3억3천만원의 소득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잣종실 이외에 고로쇠 수액, 산나물, 송이버섯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양여해 7억여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양양읍 공고 제 2012 – 2 – 2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07 월 일

양 양 읍 장

1. 사 업 명 : 『당초: 이정은』⇒ 변경: 전선만』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변경
2. 도로위치 : 당초 : 양양읍 정손리 산75번지 ⇒ 변경 : 정손리 77-10번지
3. 도로길이 : 당초 : 25.0m ⇒ 변경 : 27.0m
4. 도 로 폭 : 1.0 m
5. 도로면적 : 39.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유자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39.0	39.0		
양양읍 정손리	77-10	임야	39.0	39.0	전선만	도로지정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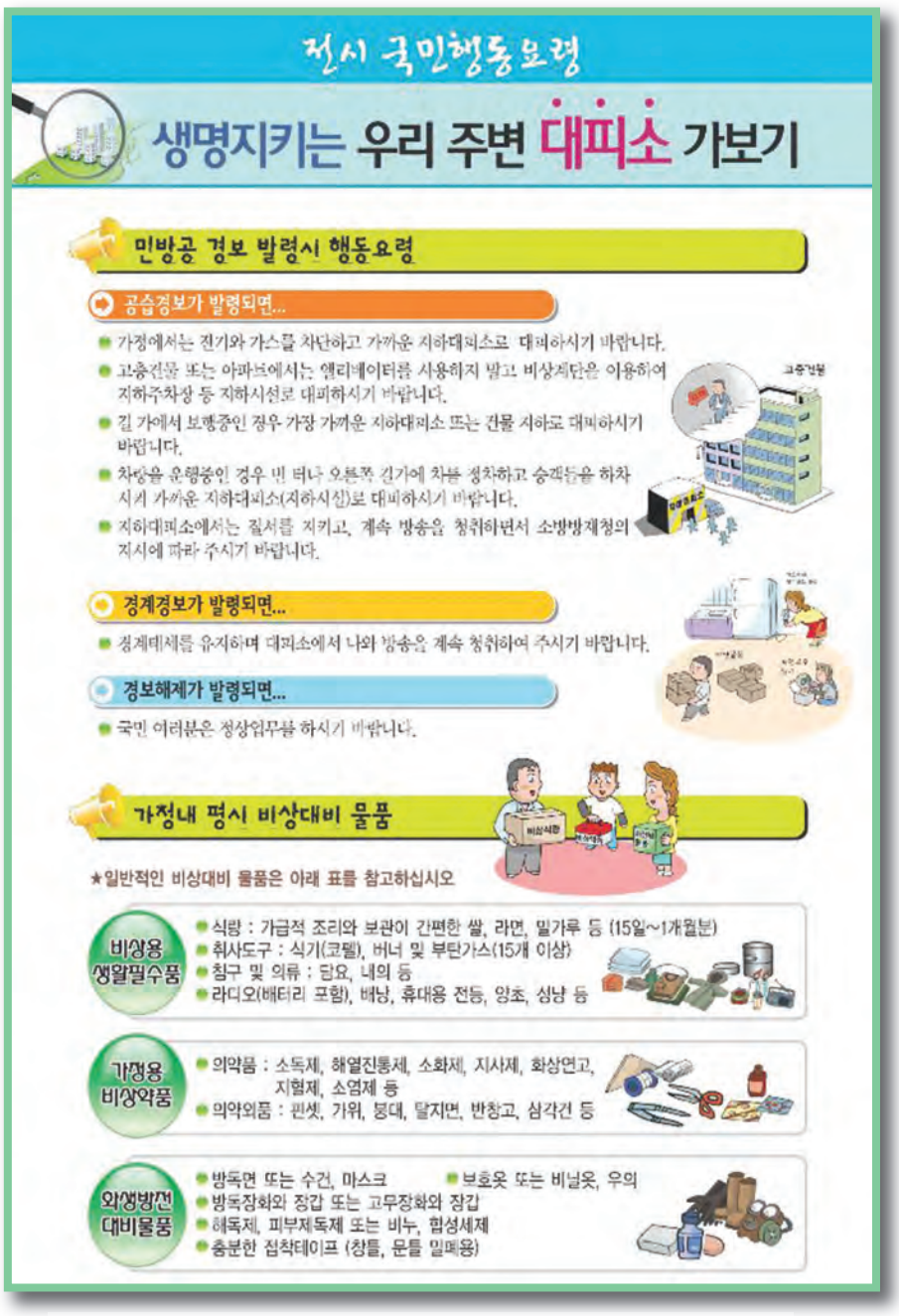
고교생 민박교류 체험 소감

"일본의 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검소하며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같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호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양양고등학교 2학년 김명환

2014년 하반기 장애인 국비지원 취업훈련

◦장애인국비지원 취업훈련생 모집
◦속초 · 양양 · 고성 · 인제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컴퓨터 사무자동화과정 초급~중급(9월 1일 개강~6개월 교육)
◦전액무료/교통비, 식대, 훈련준비금, 자격증수당, 훈련참여 수당 가족, 가계보조 수당지급
◦졸업 후 취업처 알선
◦속초직업전문학교 (조양동 황보빌딩 : 문의 637-1470)



일자리 찾으시나요?

취업성공패키지

1. 우리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와 취업계획 수립,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를 찾으시는 구직자 중 아래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이하인 경우「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패키지 I형		27,108	46,157	59,711	73,265	86,819	100,372
패키지 II형	직장	45,180	76,928	99,518	122,108	144,698	167,288
	지역	54,216	92,313	119,421	146,529	173,637	200,745

♣**방문신청:**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엠클리닉빌딩 3층

♣**참여자격:**

I 유형(만18~64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이하인자)

II유형(청년층 만18~34세 이하, 중장년층 만35~64세 이하)

♣**지원내용:** 1단계(4회상담 10~20만원지급)→2단계(직업훈련수당 최대 284,000원)→3단계(집중취업지원)→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I 유형에 한함)

♣**제출서류:** 저소득층 · 중장년층(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층(신분증, 등본, 졸업증명서)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 033)630-1919

공고 제2014 - 771호

2014년 제3회 톡톡 작은 공모전 실시

강원도에서는 생활 불편사항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톡톡 작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8월 1일
강 원 도 지 사

1. 공 모 명 :「2014년` 제3회 톡톡 작은 공모전」
2. 공모기간
 · 접수기간 : 2014. 8. 1(금) ~ 8. 31(일)
  ※ 접수마감일 24:00 까지, 우편 등 기타 방법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결과발표 : 2014년 9월중
3. 공모자격 : 자격제한 없음
4. 공모주제 : 명절(추석) 준비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5. 공모방법
 · 강원도 제안 홈페이지(http://idea.gwd.go.kr) ⇨ 정책 제안하기 ⇨ 공모제안
 · 우편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기획관실 제안담당자(200-700)
 · 기타 : 이메일(kyh024@korea.kr) 또는 팩스(033-249-4013)
  - 팩스접수 시 담당자에게 수신확인을 바랍니다.(033-249-2112)
  ⇨ 우편(이메일)은 제안서 서식(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에 따라 제출
6. 심사 및 부상
 · 심사방법 : 실무부서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 결정
 · 심사기준 : 창의성, 효율(경제)성, 실시가능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 결과발표 : 9월중(도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보)
 · 시상내역
  - 아이디어왕(1명) : 5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참 신 왕(1명) : 3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공 감 왕(1명) : 2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다 작 왕(2명) : 영화관람권(2매)
7.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심사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기획관실(☎249-2112)로 문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사항 알림 및 도로지정(변경)공고

1.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정(변경) 공고 하고자 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양양소식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번호	2012-양양읍-신축신고-20호		신고일자	2012.11.12.
대지위치	양양군 양양읍 정손리 77-5번지			
용 도	단독주택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① 건축주 ②공사감리자 ③공사시공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주 및 시공자	성 명	이정은(1983.10.10)		전선만(1958.01.27)
	주 소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54-9, 102동 1502호 (양양서문주공아파트)		양양군 양양읍 청곡길 28

복합민원 및 기타사항
1. 개발행위(변경) 협의【민원봉사과-28886(2014.07.31)호】☞ 조건부 협의
○당초 협의조건 준수하여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산지전용(변경) 협의【산림농지과-6088(2014.07.29)호】☞ 조건부 협의
○산지복구비 증액 재예치 : 금29,439천원
3. 도로지정 변경(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
○당초: 양양읍 정손리 산75번지 ⇒ 변경: 양양읍 정손리 77-10번지(39.0㎡)

미시령 통행료 감면(확대)안내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 통행료 감면카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양양군에서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군민에게 감면카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과

◇ **지 참 물:**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카드발급비용(350원)

◇ **발급대상:**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는 주민소유차량

· 세대 1대만 인정, 세대원 4인이내 등록가능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유차량으로 차적등록된 차량
· 단체, 법인, 사업용(영업용포함)차량.
· 대상차종 : 승용차, 5.5톤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 감면내용 : 1일 왕복 1회(해당차량 요금의 50%감면지원)

※ 통행료 : 소형 3,300원. 중형 5,600원

◆ 감면제외

· 차량소유주가 전출등으로 주민등록표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지역 주민 소유차량
· 임차(렌탈)차량, 유로도로법에 의해 기 감면중인 차량

※ 미시령 하이패스 통과시 감면적용 안됨(기존대로 이용)

양양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이용안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향상으로 대행지정하여 제작소 운영

· 상 호 : 양양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60(농업기술센터 앞)

※ 양양군 차량등록대수 : 12,460대(2014. 6월말 현재)

대형 폐가전제품 무료 방문 수거 시행 안내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편의 도모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강원도, 환경부 및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공동으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사업' 을 시행 합니다. 이 사업은 아래 배출 방법을 통해 배출 예약을 하면 수거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해 가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서비스로 무료로 운영 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방법으로 배출 할 경우 기존의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를 납부하고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예약방법

· 인 터 넷 : www.edtd.co.kr 또 는 www.15990903.or.kr
· 콜 센 터 : 1599 - 0903[평일(08:00 ~ 18:00), 토요일(08:00 ~ 12:00)]
· 카카오톡 ID : weec

2 수거방법

· 예약일에 수거기사 방문 수거[수요일(08:00 ~ 18:00)]

3. 대상제품

· 방 문 수 거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 이상 크기 가전제품

※ 제품 작동 여부 무관

· 선 택 수 거 : 위 대상 제품 방문 수거 시 추가 배출 가능
· 방문수거불가 : 냉장고 컴프레셔 탈취 등 불법 훼손된 제품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안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해당 농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아직 지원를 받고 있지 않은 농어업인이 있어 안내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고지원 대상자

- 농어업종사자로 신규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기존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농어업종사자

※ 부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도 지원 가능

◆국고지원 금액

- 월 최고 38,250원(연간 최고 459,000원)

※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월 최고 38,250원까지 지원

※ 10년 가입기간 미충족으로 일시금 수령시에도 지원받은 국고지원금도 일시금에 포함하여 지급

◆국고지원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어업면허증 등

※ 상담시 개별안내 예정

◆기타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강릉지사 전화 033-640-9351~9355로 상담 바랍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주택연금 안내!

◦ 100세 시대,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어르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평생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집값이 떨어져도 똑같은 연금을 받고, 오래 사셔서 집값보다 더 받으면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상속해주는 국가보증제도

◦ 혜택 : 재산세등 세금감면과 면제, 평생 거주 평생 소유권 보장

◦ 사망후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연금 지급, 연금소득세 공제

◦ 기초연금 수급가능성 확대, 국가보증으로 절대 안전 등

◆신청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 259 - 3615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상향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배경

·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850,000원 미만 : 본인보험료의 1/2 정률지원
· 기준소득월액 850,000원 이상 : 월 38,250원

※ 2013년 최대 월 35,550원에서 2014년 38,250원으로 2,700원 인상

※ 기준소득월액이 850,000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신고하여야 인상된 국고지원금액 받을 수 있음

□ 농어업인 확인 신고 절차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지원부상 세대주 : 농지원부 제출
- 농지원부상 세대원 :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인확인서

□ 부부가 농어업에 협업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640-9351~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중풍.치매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의 급여 혜택과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확대해 왔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드립니다.

□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자에게 장기요양 급여 혜택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이후 치매 증빙자료로 의사소견서「치매진단 관련 보완 서류」제출 필수
·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

※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 제공

- 기존의 내용(가사활동 등)으로 방문요양 이용 제한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발급 및 등급판정 절차 등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장